

변화와 혁신을 무기로 탄탄한 성장세를 달리는

계룡건설(주)



▲ 계룡건설(주)이 시공한 홍성의료원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계룡건설(주)은 우수한 재무구조와 정도경영, 합리적인 내실경영,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바탕으로 매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건설업체다.

계룡건설(주)은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며 경영방침을 새롭게 정립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사회가 외환위기로 고통받은 IMF시절에도 인력의 인위적인 감축이나 구조 조정 없이 흔들림 없는 성장을 지속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또한 주택사업 브랜드인 '리슈빌' (불어 RICHE +VILLE의 합성어 : 풍요로움이 시작되는 곳)을 통해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과 수익창출을 실현하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계룡건설(주)은 튼튼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기술혁신, 친환경 건설을 실현, 시대변화에 적응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 오대수 상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

▶ 협력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최근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저가 수주 및 수주 잔고 감소, 공동주택 입주민의 민원 불만사항 증대,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에 대한 어려움, 최첨단 기능형 건축물의 확산에 따른 기술력 부재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협력업체의 경영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주물량 증대를 위해 “영구임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터키 공사”의 수주영역확대 등 국가정책의 변경에 따라 발 빠른 대처가 이뤄져야 하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적합품 발생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첨단 기능형 건축물에 대해 기술능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영업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설비건설협회에 하고 싶은 말

“의 · 식 · 주”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이며, 주(집, 건물)는 가족들이 쉬고, 잠자고, 일하는데 필요한 공간입니다.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이제 건물은 하나의 공간의 범위에서 벗어나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기계설비가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기계설비분야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기위하여 기계설비인들은 에너지 절약적인 친환경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설비건설업 발전을 위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발전적인 관계 향상, 하자사례연구를 통한 기술력 향상, 설비업계의 전문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신기술 · 신공법에 대한 기술 공유를 통한 설비건설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부는

계룡건설(주) 설비부는 본사와 현장 총 29명으로 이뤄져 있다. 설비부 운영시 수주역량 강화를 위한 대인관계교육 및 조직생활을 위한 창의적 마인드 향상, 설비부 구성원 간 기술지식의 상호 교환 등을 목적으로 년2회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3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설비공사 하자 발생현황 분석 및 대책 전파, 현장별 하자 발생 사례 등을 직원별 상호 발표 함으로써 정보 공유 및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하자 발생원인 감소,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계시공치침서 작성 및 주기적인 설계기준 업데이트로 품질향상 및 민원형태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 및 중앙난방 지구 T.A.B 시범 실시, 입상배관용 일체형 고정틀 등 시공 개선 및 콘덴싱 보일러 적용으로 공간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화장실 공간 확보를 위한 매립형 휴지걸이 설치, 보일러실 주방 인접 설계를 통한 누수 민원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고 있다.

현장 관리시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팀장으로 한 팀별 관리, 공사 전 담당자를 선지정하는 Q/C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꾀하고 있다.

계룡건설의 신기술 · 신공법은

① 세대 소음 저감 방안 적용

- 원피스형 양변기 적용 (공용 + 부부)

: 사이폰 작용에 회전운동을 첨가하여 흡입효과, 세정

효과를 증대시킨 것으로 다른 Type과 달리 진공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음형으로 분류

- 세대내 오배수배관 접합방식 변경으로 인한 소음저감
: 양변기 삼중엘보 + 이중부속 + 배관보온 + 섹스티아

- 건식AD 시공으로 인한 소음저감

: 배기그릴+역풍방지기+후렉시블 닥트호스+방화담판 +스파이럴 AD



▲ 세대내 오배수관(양변기 삼중엘보+이중부속+배관보온+섹스티아)



A clock - 시계

Parson to his wife: "Well, my dear, I do wish I could think of some way to make the congregation keep their eyes on me during the sermon."

Wife: "Well....."

Their little boy: "Put the clock right behind the pulpit, d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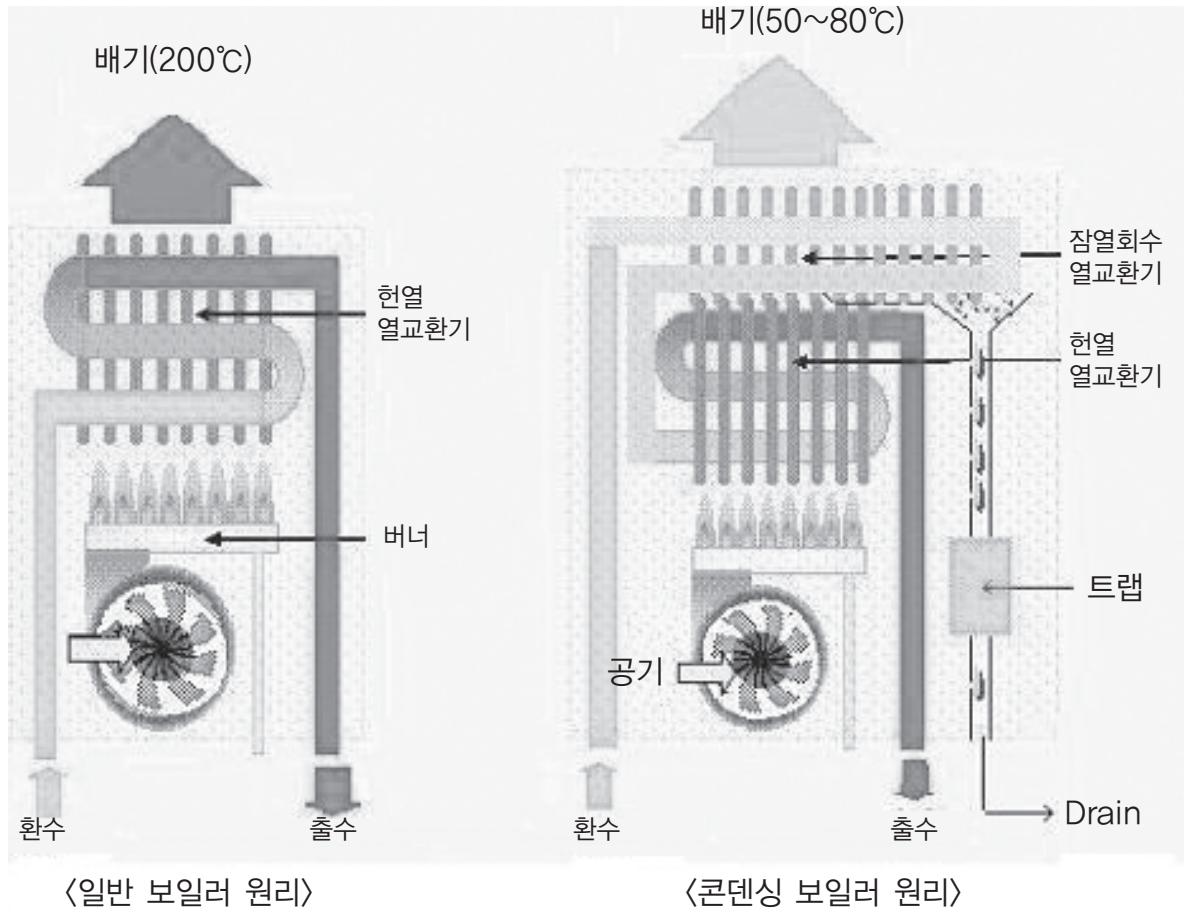
목사가 아내에게: "그런데 여보, 내가 설교하는 동안 회중의 신도들이 시선을 내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무슨 묘책이 있으면 좋겠단 말이야."

아내: "글쎄요....."

어린 아들: "아빠, 시계를 설교단 바로 뒤에 걸어놓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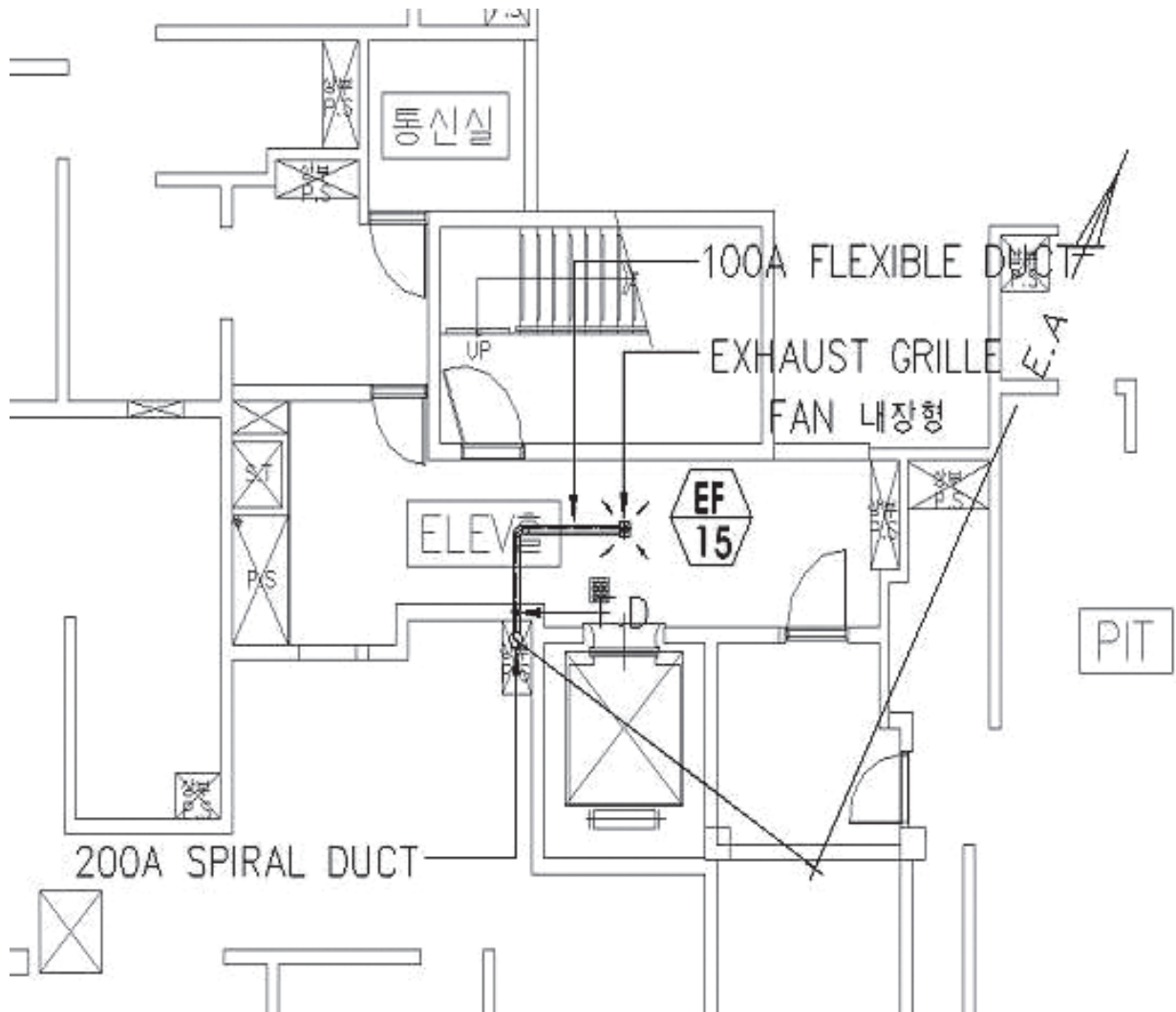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

② 콘덴싱 보일러 적용 : 열효율 증가로 난방비 절감 (82 % → 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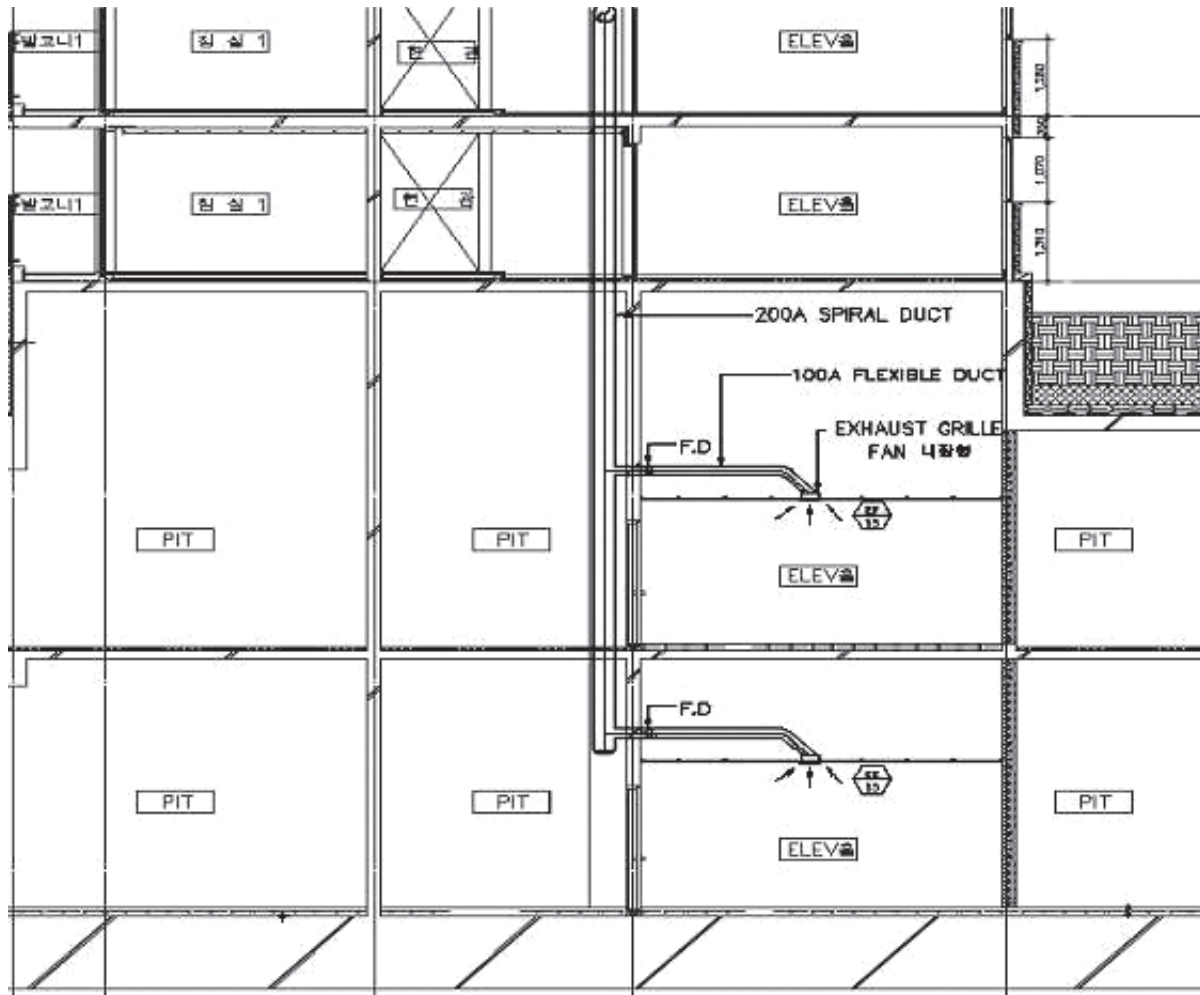


▲ 일반 및 콘덴싱 보일러 원리

③ 건식AD(Air Duct) 연장 시공 :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 환기 성능을 향상하여 결로 발생 저감



▲ 건식 AD 계통도 설치도면



▲ 건식 AD 평면도 설치도면

④ 기타

- 욕실 바닥난방 : 기존 방열기 삭제로 공간 활용 증대
- 매립형 휴지걸이 : 화장실 내부 공간 확대



▲ 계룡건설(주)이 사용하는 매립형 휴지걸이

- ④ 우수협력사 수의계약 1건 부여
- ⑤ 습식공사 하자시 계룡건설(주)에서 하자보수
- ⑥ 신기술 공동개발
- ⑦ 저가 심의제 실시
- ⑧ 업무 전자화를 통한 부대비용 절감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도입배경

최근 정부는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극복 및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하도급 관련 양 당사자 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계룡건설(주)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하도급거래 질서확립과 원활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정 · 보급하고 있다.

계룡건설(주)의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 계약관련

·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저가심의

계룡건설(주)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협력업체의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공사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시행 하여 덤핑,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협력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업체 평가 및 시공관리

상생 협력 증진사항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

- ① 외주기성 100% 현금성 결제
- ② 품질, 시공관리 등 공사지도 교육
- ③ 우수협력사 계약보증 면제 혜택

■ 선정운동

- 정규업체 등록기준 · 신규업체 등록기준
- 신규업체 등록심사

계룡건설(주)은 건설한 협력업체 육성 및 발굴을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을 운영, 매년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등록여부를 확정해 통보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

- CP 운영조직 활성화 · 교육 및 성과보고

계룡건설(주)은 2004년 공정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결정, 2006년 자율준수관리자 및 전담조직을 편성해 하도급관련 정확성, 적정성을 평가하고 감시조직을 별도로 운영, 법규 위반행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협력업체 선정 · 운영 가이드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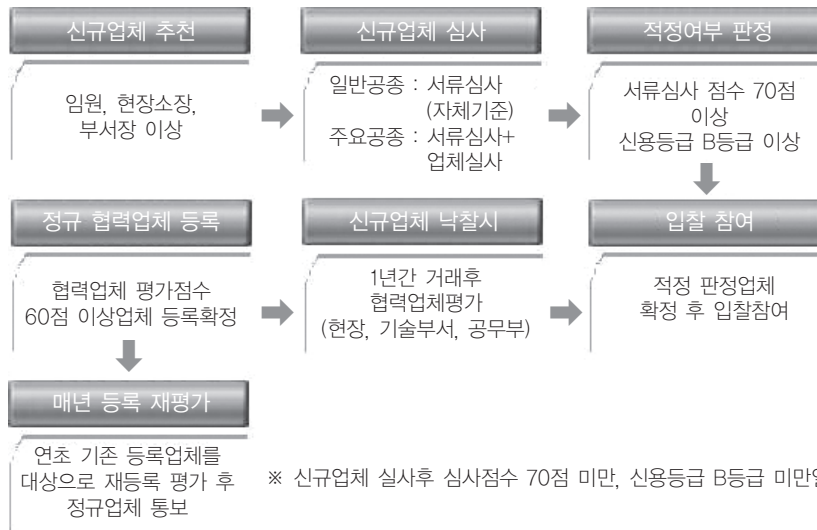
계룡건설(주)은 건설한 협력업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는 물론 부실업체 거래방지를 통한 하도급관리를 위해 협력업체 선정 ·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 협력업체 선정 ·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운용

· 발주업체 선정기준

구분	운영방안	비고
발주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종별 기 등록된 협력업체를 기준으로 견적의뢰 - 매년 협력업체 평가후 공종별 정규 등록업체 선정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파트너쉽 구축, 우수 협력사에 적극 지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업체로 발주시 사전등록기준 부합여부 판단 후 견적참여 - 신규업체와 거래시 1년이상 거래후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최종 정규등록업체로 선정 	

· 신규 협력업체 발주시 업무 흐름



협력업체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

■ 개요

계룡건설(주)은 일정규모 이상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심의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 임직원들이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치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참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교육 실시 ▶ 자율준수의 감시, 감사 등 내부감독체계 구축 ▶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자율준수프로그램관련 문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건설(주)은 2004. 6월 CP도입을 결정,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공시 ▶ CP운영현황 및 운용계획 공시



나라마다 입맛이 다르다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는?

세상에는 1만 3천여 종의 물고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식탁에 오르는 물고기는 그중 3백 50여 종 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물고기는 1백 5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각 나라 사람들마다 즐겨먹는 생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민족 체질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데, 중국인은 잉어를 좋아하고, 일본인은 도미를 최고로 친다. 그리고 미국인은 연어를 좋아하고, 프랑스인은 넙치, 덴마크인은 대구, 아프리카인은 메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수산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즐겨 먹는 금메달 생선은 조기다. 그 다음

은 오징어, 굴, 갈치, 콩치, 고등어, 명태 순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생선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생선들이다.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선호 생선인 조기와 명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먹는 생선이다. 조기는 미국 연안에 80종, 유럽에 20종, 열대에 37종, 일본에 14종 그리고 한국에는 겨우 11종밖에 없는데 한국인들은 유독 그 생선을 선호한다. 조기는 우리 민족성을 대변하는 '민족 생선'인 셈이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